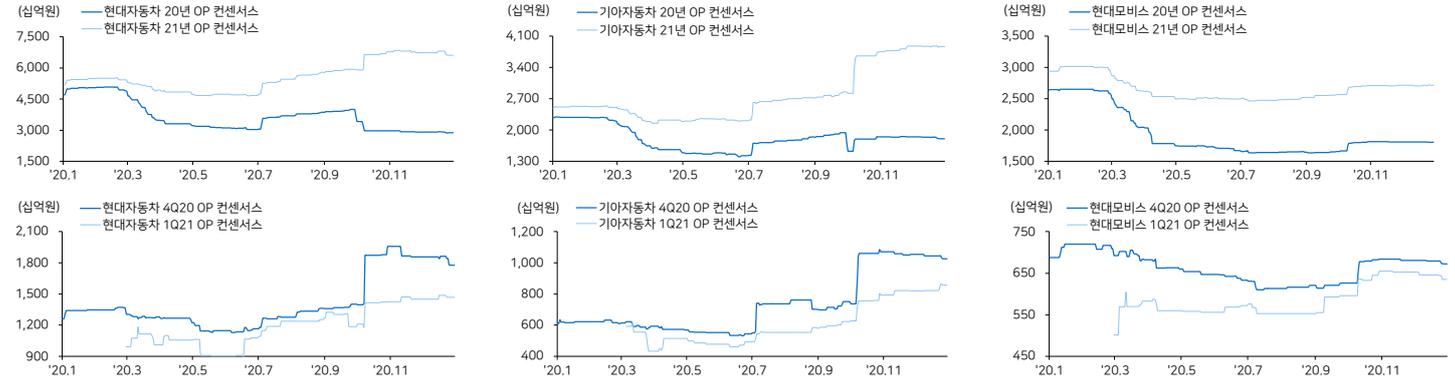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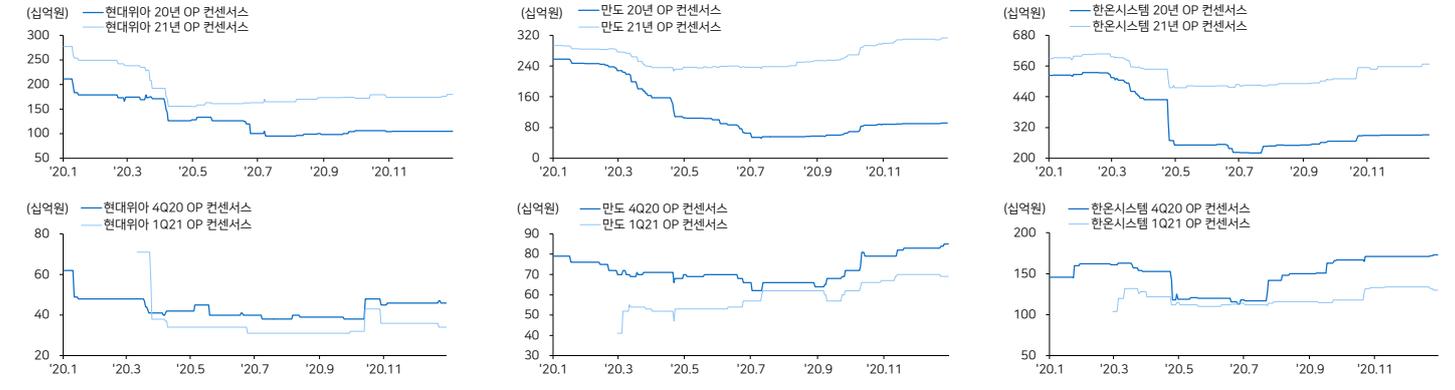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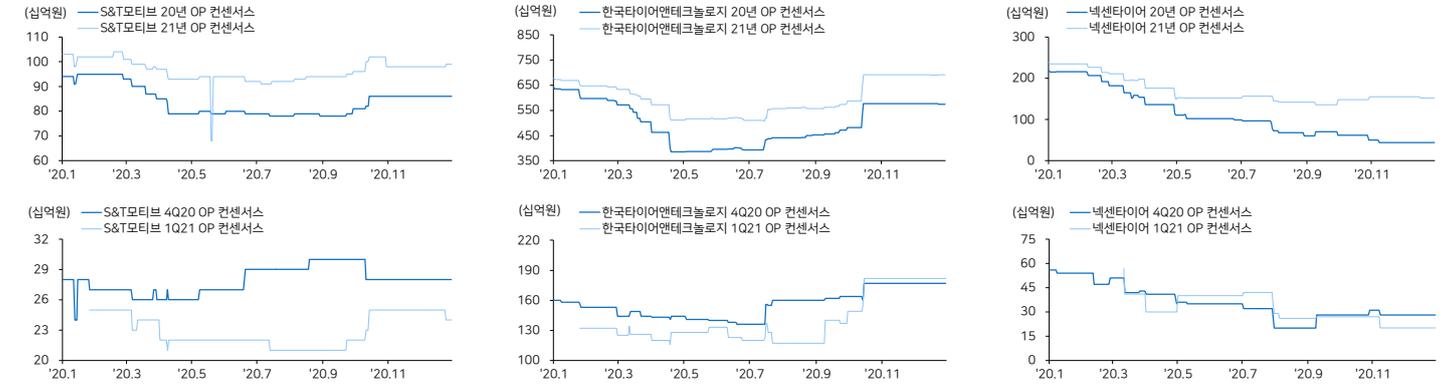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제네시스도 전기차 전환 '급가속'... 8종 가운데 3종 전기차로 (전산신문)

현대차 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내년 초까지 완성할 8종의 라인업 가운데 3종을 전기차로 재우며 전기차 전환을 가속. 올해 신차 2종을 시작으로 내년 초 1종을 추가하며 총 3종의 전기차를 새롭게 선보임. <https://bit.ly/3ityNnd>

현대차·기아, 작년 전 세계에서 친환경차 50만대 이상 판매 (조선비즈)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50만대 넘는 친환경차를 판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공개했고, 올해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출시하는 등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어 올해 친환경차 판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7/202101170022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출력 겨냥 파격할인' 기아차, 中 재고 처리 안간힘 (더그루)

기아차의 중국 내 합작사인 동명위다가가 연초부터 파격 할인을 내성. 곧 시작되는 춘절 대 이동을 겨냥한 프로모션을 통해 재고를 정리한다는 전략으로 보임. 2019년형 K4 모델에 대해서 1만6000위안에 달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https://bit.ly/3szHL7e>

자동차연구원 '빅테크 완성차 시장 진출...산업구조 변화할 것' (연합뉴스)

대형 IT 기업들이 완성차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파괴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한국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빅테크가 애플리케이션 완성차 시장 진입을 시사하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bit.ly/3v5PIHeW>

SUV·전기차도 고성능 수요... 현대차 'N 브랜드' 확장 (디지털타임즈)

현대차가 고성능 'N 브랜드' 영역을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SUV와 전기차로 확장. 현대차는 조만간 최초의 고성능 SUV 모델인 '코나 N'을 선보이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고성능 사양을 개발해 'N 브랜드'의 경쟁 기반을 단단히 다져간다는 전략. <https://bit.ly/35Q232u>

현대차그룹, 중국 광저우에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 구축 (오토타임즈)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 유럽,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현대차그룹은 1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광저우개발구 정부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판매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ttps://bit.ly/2LytjM8>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한국타이어로 달린다 (연합뉴스)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에 한국타이어 제품이 탑재.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Y에 19인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음. <https://bit.ly/2XLSDKa>

배터리·자율주행 등 59개사 세운 테슬라 출신들 (조선비즈)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테슬라. 하지만 테슬라를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기업인들이 있음. 테슬라를 떠나 창업한 이들, 테슬라 출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은 현재 60여 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5/202101150207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